

과학기술 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張 舜 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핵공학

국내에서 과학 기술 계통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에서 학위논문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정보 및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다. 우리 나라에 쓸만한 과학기술도서관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최신 현황 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보의 신속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만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에 몇 달씩 뒤쳐지게 되고, 심지어 중요한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직접 연구동향을 파악하거나 국내에 초빙되어 오는 과학기술자들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각 대학이나 연구소별로

관련된 과학 기술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서는 상당수의 과학기술문헌을 소장하고 데이터 뱅크를 이용한 문헌 정보검색 및 국내의 소장자료 복사서비스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과학 기술 자료는 무척 빈약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연구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외국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회의 보문집 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한 외국문헌 복사에는 수 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예산 책정에서 도서 구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우선 순위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현실이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과학기술 문헌

의 확보와 이의 편리한 이용에 최우선을 두는 독립적인 도서관이 세워져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도서관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과학기술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료의 확보에 예산 배정의 최우선을 두어, 외국의 우수한 도서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문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이미 간행된 단행본, 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보문집 등을 구입하고, 앞으로 간행되는 과학기술 자료들은 모두 구입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당한 정도의 문헌에 만족한다면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자들은 언제까지나 정보자료 수집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도서관은 또한 정보자료의 유통과 접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데이터 बैं크를 구축하고,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도서관 및 기타 공공도서관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과학 기술자와 일반인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가능한 한 24시간 개방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자유로와야 하고, 자료를 찾거나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बैं크를 통한 문헌 검색과 외국 자료의 복사 서비스도 과학기술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현재의 산업기술정보원에서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도서관의 위치는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덕단지가 이미 26개기관이 입주하여 1만2천여 과학기술인력이 연구, 학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 2년 후에는 약 2만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게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대덕 연구단지에서 가장 큰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이 9만 5천여권, 정기간행물이 1600여종으로 일본 쓰꾸바 대학이나 미국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의 수집분의 일에 불과한 사실로부터도 그 필요성이 명백해 진다. 또한 부지확보 문제나 다른 지역과의 거리 측면에서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의 설립은 대덕연구단지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경인지역의 정보 욕구는 산업기술정보원이 현재대로 유지되거나 분관 형태로 대덕단지의 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기술인력들이 정보자료를 찾기 위해 허비하고 있는 나타나지 않는 비용보다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초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기틀이 잡힌 다음에는 자료의 확보나 도서관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은 테크노폴리스나 첨단산업기지 등과 같은 거창한 투자와 비교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투자 효율이 큰 분야인 것이다.

도서관다운 도서관 하나 없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은 만용에 불과한 욕심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기업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